

# 공간디자인의 감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

## A Conceptual Study on Sensibility of Space Design

이성미\* / Lee, Sungmi

### Abstract

Recently, as emotional elements have been applied to many fields including marketing, architecture, and design, new understanding on and interest in sensibility are emerging. The sensibility, as opposite meaning to the reason, has been excluded from academic object, and researches in sensibility have been diversified for the meaning, scope, application methods and even application target of sensibility without consistency. This study aims to redefine meaning of sensibility by examining documents related to sensibility, and to examine the features of sensibility in design, especially in space design. Consequently, sensibility was defined to function as a filter which deals with numerous stimulative informations intuitively and uniformly while human gives significance to a stimulu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n apparent features of sensibility and studies of sensibility engineering, the sensibility occurs not only by visual and physical stimulus but also by meaningful stimulus, and both are known to have mutual influence on each other. In space design, spaces of many purpose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spaces of routine and out of routine following the empirical time, and physical stimulus and interesting factor pursued by these spaces are inversely proportional. This study is meaningful insofar as it enabled to explain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stimulus, meaning, and other factors within sensibility as a comprehensive concept by redefining its concept.

키워드 : 공간디자인, 감성, 현상적 의미

Keywords : Space design, Sensibility, Phenomenal meaning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감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적용은 최근 철학, 마케팅, 디자인,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감성은 이성에 대립된 개념으로서 감정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학문으로서 다룰 수 없는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디자인, 마케팅, 감성과학, 감성공학 등의 분야에서 감성의 응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감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각 영역에서 다루는 감성의 의미들은 다양하고 모호하며 감성은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디자인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디자인에 있어서 표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디자인의 감성

적 요소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감성공학분야의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나 미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와 내용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감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그 정의가 감성의 부분적인 특성에 국한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성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념적인 연구는 감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다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감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간에서의 감성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감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문헌들을 비교 검토하여 감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현상적 특성을 파악하며, 공간디자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디자인의 감성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 정회원, 국립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전공 전임강사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감성을 재정의하고 공간에서의 감성적 측면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의 포괄적이고 현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감성을 재정의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감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최근까지의 철학적 논의를 정리한다.

둘째, 감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통해 감성의 현상적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람에 대한 인지적 자극물로서의 공간디자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공간에서의 감성은 어떠한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문헌연구는 공간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와 감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국감성과학학회의 연구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내용상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감성, 뇌과학, 디자인 관련 단행본들을 조사하였다. 한국감성과학학회의 논문은 2003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 중 감성의 개념/특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거나 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을 다루고 있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논문들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개념적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논문은 학회문헌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2000년 이후에 감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총 446건의 논문 중 제목에 감성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상 감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17편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논문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 2. 감성에 대한 고찰

### 2.1. 감성에 대한 정의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감성(sensibility)이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로서 이성 또는 오성(悟性)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에 속한다.<sup>1)</sup> 또 감성은 이성(理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능력으로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sup>2)</sup> 그러나 감성을 감성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오늘날 제반 학문의 발전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감성을 인간의 생의 포괄적인 영위(營爲)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한 국면으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3)</sup>

감성에 대한 초기의 정의는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감정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왔으나 사람의 인지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해지며 모호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감성

에 대한 의미 또한 협의의 것으로부터 광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측면을 감성마케팅으로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성에 대한 연구문헌들을 살펴보면 감성에 대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의 감성이다. 여기서의 감성은 종종 감정(emotion)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정신이래로 지금까지 학문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고수되어온 입장으로, 칸트는 분석 판단의 활동이나 선형적 종합 판단에 개입되는 범주의 형식에서 이성의 근본적 기능을 보았고 질서가 주어지기 전 또는 지식의 단계에 오르기 전의 인간 경험에서 감성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감성을 이성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감성과 이성이 영향을 주고받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대현은 이에 대하여 이성은 분석적 판단, 감성은 종합적 판단에 속하며 인간 경험의 문맥적 이해에 대하여 감성의 이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sup>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임을 증명하는 사례<sup>5)</sup>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능한 행동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것이 올바른 것이어서 라기 보다 특정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동반되는 감정 때문임을 시사한다.

둘째, 감각인식 능력으로서의 감성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감<sup>6)</sup>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각 감각이 인간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생각은 감성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는데 감성이 외적감각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는 것이다. 감각에는 내부감각과 외부감각이 있는데 내부감각에는 고통과 같은 것도 있다. 이외에도 물리적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들이 존재하는데 사용성(usability)도 그 사례에 속한다. 정상훈, 이진표의 연구<sup>7)</sup>는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 외에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감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용성이란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감성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기대나 욕망 자극의 예<sup>8)</sup>에서도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기억이나 기대가 주는 이차적 자극이 감성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4)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서울, 1996, pp.9-17

5)성영신 외,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 해나무, 2004

6)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의 5가지 감각으로 감각을 신체에 있는 감각수용기의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www.EnCyber.com(두산백과사전, 2007)

7)정상훈·이진표, 제품 사용중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 19, No. 2, 2006, pp.343-354

8)성영신 외, Op. Cit., pp.282-307

1)www.EnCyber.com(두산백과사전, 2007)

2)krdic.naver.com(네이버국어사전, 2007)

3)www.EnCyber.com(두산백과사전, 2007)

셋째, 자극정보 인식체계로서의 감성이다. 감성은 자극정보를 처리하는 직관적 메모리 또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필터는 생활 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기억, 신체의 정보 등을 종합하여 생성되며 이것은 동일한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과 상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구형은 인간의 감성에 대하여 감각계와 정보처리계의 중간에 위치하며 감각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up>9)</sup> 이와 비슷한 정의로서 Brave and Nass는 감성은 인간다움의 기본요소로서 개인의 요구와 목적에 연관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0)</sup> 이는 감성을 가장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나 이러한 측면에는 감성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연구대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감성이 이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영향을 주는 측면, 감정과 감성이 혼돈되는 문제, 감성의 발생과정에서 감성이 인지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2. 감성의 현상적 특성

### (1) 감성의 직관성/주관성

사람의 의식은 오직 자신만이 입력하고 호출할 수 있는 세계이다. 의식은 사람을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일인칭의 개인적인 세계이다. 감성은 이러한 개인적 의식활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감성의 개인성 즉 주관성은 감성의 발생이 개인의 생활경험에 의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1)</sup>

감성 공학의 연구자들은 감성에 대한 정의의 한 가지를 '직관과 지적 활동의 상호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적 정보 처리의 근간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sup>12)</sup>

### (2) 감성의 포괄성

감성은 그 자극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인지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는다.

감성을 유발하는 자극정보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감을 통하여 전달되는 물리적 자극 외에도 기능성, 사용성 등의 비물질적 자극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극정보는 개인의 생활경험 등으로부터 축적된 기억 등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이구형은 감성에 기능적 감성과 감각적 감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감성적인 제품이란 사용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였다. 그는 제품과 관련된 감성을 제품의 외형이나 색상, 디자인에 대한 "감각적 감성"과 제품의 기능과 품질, 사용성 등에 대한 "기능적 감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3)</sup> Donald Norman에 의하면 사용성과 감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부정적인 감성은 쉬운 과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긍정적인 감성은 어려운 과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개발시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제품의 기능에 중점을 둘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 됨을 시사하였다.<sup>14)</sup>

감성은 인지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감성디자인이 단지 일부감각을 유발하고자하는 시도에 그쳐서는 안되는, 디자인의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구형은 여러 연구에서 감성과 감정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발생빈도에 관한 부분이었다. 감정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비하여 감성은 사물이나 환경을 보고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발생된다고 하였다. 외부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마다 갖게 되는 감성은 순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감성은 인간의 생활에서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감정의 발생, 행동 등 모든 부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5)</sup>

### (3) 감성의 발생과정

뇌과학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나 정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직도 미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구형은 그의 몇몇 연구에서 감성(sensibility)과 감정(emotion)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sup>16)</sup> 감성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변연계(limbic system)일 것으로 추측한다. 변연계는 해마(hippocampus), 편도체(amygdala), 대상회(cingulate gyru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자리 피질 영역으로서 원시적 감각 즉, 통각, 내장감각, 성감각 등의 형성에 역할을 하며, 자율 기능의 고위중추인 시상하부에 대해 더욱 고차원적인 통합을 수행한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 및 기억, 내장에 관한 정보들이 통합되며, 이로서 정신신체반응, 정서반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구형에 의하면

9)이구형, 인간감성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는 문집, 1997, p.40

10)Brave, S. and Nass, C., Emotion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2003, 정상훈·이건표, Op. Cit., 2006, p.346에서 재인용

11)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감성과학, Vol. 8, No. 3, 2004, p.117

12)허성철, 경험적 감성 정보에 의한 직관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 한국감성과학회지, Vol. 6, No. 1, 2003, p.2

13)이구형, 감성공학의 개념과 연구 및 응용 방법, 대한인간공학회지, Vol. 17, No. 1, 1998, p.98

14)Norman, D. A., Emotional Design-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 Basic Books, 2004, pp.17-13 정상훈·이건표, Op. Cit., 2006, p.346에서 재인용

15)이구형, 인간감성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는 문집, 1997,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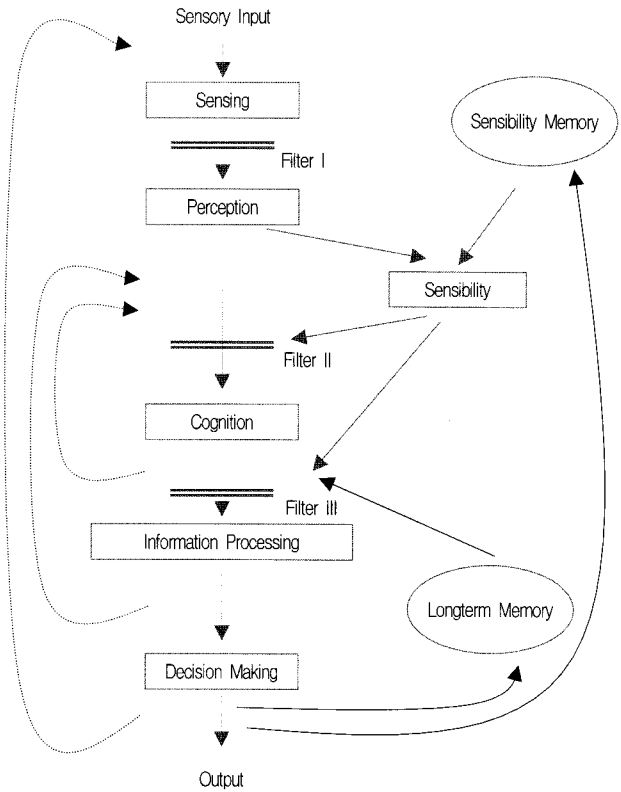
16)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감성과학, Vol. 8, No. 3, 2004, p.116

감정은 감성에 비해 심리변화의 강도가 높으며 생리적 변화 및 표정, 행동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이 측정이나 평가가 가능하다. 감성이 외부의 감각 및 정보자극에 대하여 개인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반사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이라면 감정은 감각자극에 대하여 두뇌에서 정보처리와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노력에 의하여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다.<sup>17)</sup> 감성과 감정의 구분에 대한 그의 명쾌한 정의는 감성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혀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매우 설득력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성과 감정에 대한 지나친 구분은 이 두 가지가 동떨어진 기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보다는 감성은 자극에 대하여 감각정보, 기억정보, 신체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으는 직관적인 기능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나 신체반응, 감정반응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오히려 감정은 이때 유발되는 다양한 표현 스펙트럼 중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당하게 보인다. 뇌의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하여 최근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좌뇌나 우뇌설, 즉 언어나 수리, 예술 등을 뇌의 한 부분에서만 담당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름이 알려졌다. 감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감정에 대해 다른 부위의 뇌가 활성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수전 그린필드(Susan Greenfield)의 뉴런집합설<sup>18)</sup>은 하나의 개념이긴 하지만 감성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모델로 보인다.

이구형, 김영준의 감성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sup>19)</sup>는 감성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한 초기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항공기 조종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성은 감각기관이 외부의 신호를 인식한 직후 반사적이며 직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의 정보처리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연구자가 제시한 <그림 2>의 인지과정 모형에서 주목할 점은 감성이 인지과정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점이다.

#### (4) 감성의 변화성

감성은 시간적 경험과 개인성,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감성의 변화하는 성질은 자극의 불안정성, 개인의 경험, 욕구, 상황의 차이와 변화에 기인한다. 감성은 내적 외적 감각정보에 의존하는데 감각정보의 '느낌'이라는 직접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것이지만 극도로 사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그림 1> 감성요소가 포함된 인지과정 모형  
출처: 이구형, 김영준(1997), p.98

는 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구형의 연구<sup>21)</sup>는 복합적인 감각자극이 제시될 때 감성속성과 강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개인의 시간적 경험에 따라 다른 감성이 유발되는 사실에 대한 연구는 허성철의 휴대폰디자인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sup>22)</sup>, 전명훈, 한광희의 악보읽기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작업기억에서의 처리 유형의 차이에 대한 연구<sup>23)</sup>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성철의 휴대폰디자인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sup>24)</sup>에서 사용경험이 있으며 선호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다각적인 제품속성에 반응하고 있으며 사용경험은 있으나 선호도수준이 낮거나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는 인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를 지각적으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 수용요소는 심미적 속성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제품의 사용경험에 의한 경험적 기억 정보는 인지대상의 선호도 평정에 있어 그 인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해석적 반

17)이구형, 감성공학의 개념과 연구 및 응용 방법, 대한인간공학회지, Vol. 17, No. 1, 1998, pp.91-102

18)수전 그린필드는 의식을 유기적 구조의 뉴런집합 집합으로 가정하고 있다. 의식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의 의식 이론에 의하면 뇌에서는 뇌세포 수천만개가 순간적으로 형성하는 뉴런집합이 여러 개 만들어지며 언제나 가장 큰 집합이 지배적이며 그 순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Susan Greenfield, Brain Story, 브레인스토리, 정병선역, 지호, 2004, pp.281-306

19)이구형·김영준, 감성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모형,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는논문집, 1997

20)나카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최재석 옮김, 도서출판국제, 1999, p.83

21)이구형·김병주·정일석, 시청각 복합자극에 대한 인간감성의 변화, 한국감성과학회지, Vol. 4, No.1, 2001, pp.43-51

22)허성철, 디자인 요소의 상대적 주목성과 제품 선호 반응의 상관관계, 감성과학, Vol. 8, No. 3, 2005

23)전명훈·한광희, 악보읽기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작업기억에서의 처리 유형의 차이, 한국감성과학회지, Vol.6, No. 3, pp.21-28

24)허성철, Op. Cit

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전명훈, 한광희는 전문가와 초보자가 악보읽기에서 다른 작업처리 유형을 보임을 보여주었다. 읽기의 전문가들, 즉 정규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성인들은 고빈도 단어를 읽을 때, 빠른 처리를 위해 언어정보를 시각적 표상에서 바로 심상 어휘집으로 넘기는 종합적인 처리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 전문가들 역시 높은 빈도의 음악적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음 루프를 거치지 않고 시각적 표상에서 바로 부호화함을 발견하였다.<sup>25)</sup>

또한 사람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이 내재되어있다는 사실도 감성의 변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실내디자인의 성향의 심리학적 해석에 대한 연구에서 함정도는 실내 공간 형태의 지속적 변화추구는 인간의 직관속에 융해된 이원적 요소의 상호대립성과 보완성의 끊임없는 주기적 부침과정이며, 이는 긴장 및 이완의 자극장 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속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sup>26)</sup>

### 3.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

#### 3.1.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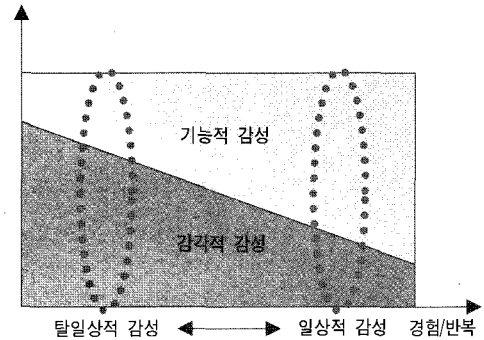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은 인간의 오감으로서 체험되는 공간이다. 물리적 공간에는 가구 등의 물체가 차지하는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과 물체와 물체사이의 빈 공간인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이 있다.<sup>27)</sup> 비어있는 공간, 즉 소극적 공간은 사용자의 행위공간으로서 행위의 개별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의 빈 공간으로 인해 동일한 물리적 장치(setting)에서도 사용자의 체험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은 의식의 질서구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지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하여 린치(Kevin Lynch)는 결절점(node), 통로(path), 구역(district)의 개념으로 나타내었다. 그는 이러한 정위(orientation)의 체계(system)가 훌륭한 환경적 이미지를 구성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체계가 약화된 곳에서는 이미지 형성이 어렵게 되고 사람들은 상실했다(lost)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sup>28)</sup>

오영근은 메를로 뽀띠의 '신체의 공간성'에 관한 언급에서 공간에 대한 지각이 신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는 물리적 공간 즉, 건축공간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매개체로 보았다. 그의 동일한 논문에서 인용한 블로우의 '감정이 이입된 공간'이라는 개념 또한 공간의 감성성이 양방향적인 문제임을 다루고 있다.

공간의 감성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적이며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의 것이며 물리적 실체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체험성이 일치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감성성에 대한 많은 접근들은 그 주요변인을 물리적인 공간이 갖는 자극의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2> 경험/반복에 따른 감성의 변화

<그림 2>는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감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각적 감성에서 기능적 감성으로 옮겨감을 보여준다. 감각적 감성은 지각 즉, 오감을 통하여 일어나고 기능적 감성은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감성으로서 공간경험이 반복될수록 감각적 감성보다는 기능적 감성에 더욱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감성적 공간은 주로 감각적 감성에 치우쳐왔거나 감각적 감성과 기능적 감성이 혼용되어있으면서도 물리적 자극의 중요성을 주로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 3.2. 거주장소로서의 공간

거주장소로서의 공간은 현상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의 공간은 체험함으로써 장소가 되고 인간존재의 의미를 생성한다. 공간에 홀로 있을 때 사람은 공간에서의 자신의 존재의미를 마주하게 된다.

거주(dwelling)라는 단어는 사람과 장소의 총체적인 관계를 가리키는데 사용해왔다. 슈츠는 그의 저서에서 거주와 관련된 두 개의 심리적 기능들인 정위(orientation)와 정체성(identification)을 언급하고 있다. 거주(dwelling)는 공간과 인간이 관계하는 방식, 곧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여행하는 인간(homo viator)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9)</sup> 이것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일상과 탈일상의 균형있는 반복, 즉 역동성에 있음을 말해준다.

29)Christian Norberg-Schulz, Op. Cit.

25)전명훈·한광희, Op. Cit

26)함정도, 실내디자인의 주기적 변화 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No.21, 1999.12, pp.26-33

27)박영순·오혜경, 인테리어디자인, 1993, p.23

28)Christian Norberg-Schulz, 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민경호·배응규·임희지·최강립 역, 서울, 태림문화사, 1996 p.28

공간은 시간성이 있다. 공간은 그 속성상 동시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며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경험적 시간축 위에 존재하게 된다.<sup>30)</sup> 공간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도 공간의 대부분을 인지하고 움직일 수 있다. 즉, 경험과 시간의 반복성에 의해 공간은 예측될 수가 있다.

공간에는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본래 공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과 행동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다. 태초의 공간은 혼돈이었으며, 사람은 이러한 혼돈에 대항하여 질서적인 공간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생활하기위한 공간의 본질은 질서적인 것이며 무질서한 공간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밖에 존재한다.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즉 공통감각(common sense)의 기초적인 요소의 일부에는 이러한 공간질서가 있다. 그러한 사실에 역행하는 병리적인 요인으로 상식을 잃게 되며 공간질서도 소멸한다.<sup>31)</sup> 정신병리학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입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사용화(appropriation)의 개념도 공간 내에서 개인적인 의미와 질서를 창조하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최은희, 권영걸의 연구에서 상업공간에 대한 선호 역시 기분좋은, 편안함에 대해, 통일, 질서, 명확성이 높을 때 감정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성은 공간선호도와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sup>32)</sup>

친숙함과 계속성은 장소에 의미를 주며 장소와 사람을 연결한다. 새로운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으며, 오래된 신발처럼 편안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 펠프의 내부에 관한 개념도 계속성과 기억의 축적이 주거의 중요한 특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인 질서 속에서 주거는 심미적인 매력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과거 주거의 매력과 추함에 대한 우리의 지각에 기초된다고 하였다.<sup>33)</sup> 물리적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의 많은 부분이 의미적 공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적 공간에는 실용적 의미, 실존적 의미, 인식적 의미, 추상적 의미 등이 있을 수 있다. 공간의 인간화<sup>34)</sup>란 개념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간은 인간적인 의미를 가질 때 감성이 발현되며 그러한 공간은 인간화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 3.3.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

앞서 고찰한 감성의 개념, 현상적 특성, 공간디자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을 다룬 연구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문헌은 2000년 이

후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감성을 주제로 다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과 학술발표논문집의 논문 17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헌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디자인이 공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을 공간전반 또는 주거, 공공, 상업 공간 등으로 분류한다.

둘째, 감성을 구체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감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으로서의 감성, 감각인식능력으로서의 감성, 자극정보 인식체계로서의 감성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감성을 발생시키는 자극범주를 물리적/비물리적/포괄적 범주로 분류한다. 비물리적 자극의 경우 문화적, 의미적, 기능적 자극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자극과 비물리적 자극을 포함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감성의 발생을 보는 관점이 일방향적인가 양방향적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감성이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시에 감성이 자극에 대한 거주자의 인지 및 반응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감성의 변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의 기준이다. 그 범주는 개별성, 경험성, 시간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개별성은 개인성과 상황 등에 따라 감성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경험성은 공간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감성이 변화함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공간일수록 이러한 개념을 고려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시간성은 공간에서의 시간적 흐름과 감성의 관계가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섯째, 공간에서 사람이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떠한 종류의 의미를 형성하는가 하는 점에서 분석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17개의 대상문헌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분류되었다.

대상공간은 공간일반으로부터 테마파크에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감성에 대한 정의는 자극정보 인식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는 감각인식 능력으로서의 감성의 개념이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성을 발생시키는 자극범주는 물리적, 기능적, 의미적, 문화적인 자극들을 포괄하여 다루는 논문이 많았다. 또한 감성 자극의 범주가 포괄적인 논문들은 대부분 감성의 발생을 양방향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의 변화하는 속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헌들이 공간 체험에 있어서의 시간적 연속성과 장면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감성발생의 개별성이나 경험의 반복성 등을 다루고 있는 예는 드물었다. 공간에서의 의미형성 또한 스케일의 대비, 상징성,

30)박영순·오해경, Op. Cit., p.24

31)나카노 하지무 (최재석옮김), 공간과 인간, 도서출판국제, 1999

32)최은희·권영걸, 지각적-인지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과 선호도의 관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2006.06

33)I. Altman & C.M. Werner, Op. Cit., p.10

34)나카노 하지무, Op. Cit.

<표 1>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연구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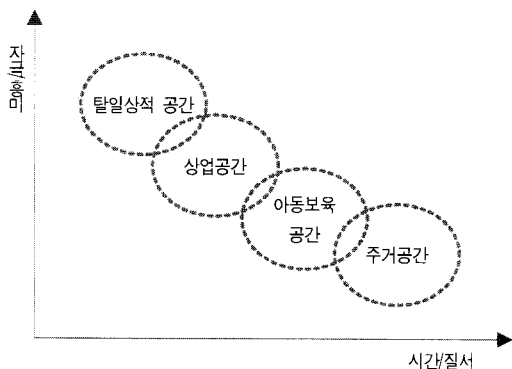
연구자(연도)	대상공간	감성의 정의	자극범주	감성의 발생	감성의 변화성			의미형성 방식
					개별성	경험의반복	시간성	
1. 김명옥(2000)	종교공간/미술관 /주거공간	감각인식능력	포괄적	양방향적	-	-	○	인간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2. 김주연, 이현수(2002)	공간일반	감각인식능력	물리적 (연구목적에 따라 색채로 제한)	양방향적	-	○ (순환성)	-	-
3. 이상호, 김태환(2002)	공공공간	-	물리적	일방향적	-	-	-	-
4. 이미경(2003)	테마파크	감각인식능력	포괄적	양방향적 (조건반사적체험)	-	-	○ (연속성)	재미, 상징성, 스케일
5. 오영근(2004)	공간일반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감각적/의미적)	양방향적	○ (개체성)	○ (의미생성)	○ (연속성)	사건(시물라르크)
6. 김명선, 김주연(2004)	호텔	감각인식능력	포괄적 (감각적/문화적)	양방향적 (인터랙티브)	-	-	○ (연속성)	상징성, 스케일, 문화성
7. 장인경, 김문덕(2004)	상업공간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양방향적 (교감,행태지원성)	-	-	○ (연속성)	상징성, 스케일
8. 김소현, 김용립(2004)	보육공간	자극정보인식체계	물리적	일방향적	-	-	-	흥미
9. 서수경(2004)	미술관	-	물리적	일방향적	-	-	○ (연속성)	유추적형태/랜드마크
10. 박혜숙, 김수경(2005)	가구	자극정보인식체계	물리적	일방향적	○ (연령대별/성별)	-	-	고급감
11. 백승경 외(2005)	공간일반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감각적/의미적)	양방향적 (상호작용)	-	○ (순환성)	○ (역동성)	인간중심성(생태성)
12. 하세강, 최상현(2005)	병원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양방향적 (공간의 체험)	-	-	○ (연속성)	상징성, 스케일
13. 서형수, 김효남(2005)	상업공간	이성의 대립개념	물리적	일방향적	○ (연령대별 감성)	-	-	품위, 인공성, 재미
14. 정은주, 이연숙(2005)	공간일반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양방향적 (인터랙션)	-	-	○ (유연성/다양성)	커뮤니케이션
15. 박수정의(2005)	공간일반	-	포괄적	양방향적 (공간의 체험)	-	-	○ (연속성)	상징성, 스케일
16. 서형수(2007)	공간일반	-	물리적 (가상현실)	일방향적	-	-	-	-
17. 윤정미, 류호창(2007)	주거공간	자극정보인식체계	포괄적	양방향적 (조건반사성)	○ (적응성/유연성)	-	○ (장면성/연속성)	상징성

랜드마크로서의 강조 등 공간에서의 흥미를 유발하는가하는 점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적인 공간의 감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상 문헌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분석기준들은 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하였던 분류기준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았으며 그 분석기

준의 내용에 있어서 자극이나 감성의 속성, 의미형성 방식들이 별도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균형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자극과 흥미가 공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분석결과를 <그림 3>과 같은 개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3> 시간과 자극에 대한 공간별 감성정위

#### 4. 결론

본 연구는 감성과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감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디자인, 특히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감성은 인간이 자극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자극정보들을 직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필터와 같은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의 환경이론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용자를 중심으로 (user-oriented)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편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감성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성이나 상황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사람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포괄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이론들과 감성디자인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공간디자인의 특수성은 그 속성상 인간의 실존을 반영하며 시간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있다. 공간을 통해 반영되는 인간의 실존은 일상과 탈일상의 역동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간은 시간성과 의미를 가지고 체험되는 특성을 가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감성을 유발시킴을 알 수 있다. 시간/반복성에 따른 공간구분은 일상성과 탈일상성을 그 양극단으로 한다. 탈일상성의 공간은 물리적 자극에 더욱 큰 영향을 받으며 일상적인 공간은 의미적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

공간디자인에 있어서의 감성을 다룬 최근의 연구문헌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감성의 정의나 자극의 범주, 감성의 발생과정에 대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대상공간의 특성에 대한 인식, 감성의 개별성, 일상적 공간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공적인 감성디자인은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사용자에게 의미를 형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기존의 감성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주어지는 자극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사용자에게 주는 의미나 사용자가 공간을 파악함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측면들을 간과하였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범주 또한 흥미나 즐거움의 추구에서 보다 다양한 의미발생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 함에 따라 감성 내에서 오감뿐만 아니라, 기능, 의미들의 작용관계를 전반적인 구도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감성성이나 감성적 공간디자인에 대한 접근이 기존의 감각적 접근방식을 넘어 좀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나카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최재석옮김, 도서출판국제, 1999
2. Christian Norberg-Schulz, 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민경호·배용규·임희지·최강림 역, 태림문화사, 서울, 1996
3. Susan Greenfield, Brain Story, 브레인스토리, 정병선역, 지호, 2004
4.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2
5. 성영신 외,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 해나무, 2004
6.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8
7.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서울, 1996
8. 김명옥,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호, 2000.03
9. 김명선·김주연, 디자인 호텔 실내공간의 감성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4호, 2004.08
10. 김소현·김용립, 감성이미지를 도입한 어린이집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11

11. 김주연·이현수, 감성반응 가상현실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1호, 2002.04
12. 박수정·서수경·오영근, 이토 도요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감성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7권, 1호, 2005.05
13. 박혜숙·김수경, 옷칠가구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감성공학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05.10
14. 백승경·김주연·이승훈, 생태요소를 적용한 감성 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2호, 2005.04
15. 서수경, 감성적 접근에 의한 구겐하임 뮤지엄의 공간구성과 조형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2004.10
16. 서형수, 효율적인 감성공학적 인터리어 디자인 분석 도구의 설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2007.04
17. 서형수·김호남, 카페 인터리어 디자인의 감성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1호, 2005.02
18. 안은희·이정옥, 현대 거주개념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2003.10
19. 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 감성적 경향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04
20. 윤정마·류호창, 주거 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9권, 1호, 2007
21. 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감성과학, Vol. 1, No. 1, 1998, pp.113-122
22. \_\_\_\_\_, 인간감성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7
23. 이구형·김병주·정일석, 시청각 복합자극에 대한 인간감성의 변화, 한국감성과학회지, Vol. 4, No.1, 2001
24. \_\_\_\_\_, 김영준, 감성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모형,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7
25. \_\_\_\_\_, 감성공학의 개념과 연구 및 응용 방법, 대한인간공학회지, Vol. 17, No. 1, 1998
26. 이상호·김태환, 공공건물의 마감재 감성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12
27. 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06
28. 장인경·김문덕, 감성디자인으로 접근한 소풍물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11
29. 전명훈·한광희, 약보읽기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작업구역에서의 처리 유형의 차이, 한국감성과학회지, Vol.6, No. 3
30. 정상훈·이건표, 제품 사용중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 19, No. 2, 2006
31. 정상훈·이건표, 감성어휘 로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 사용중 사용자의 감성변화 연구, 감성과학, Vol. 9, No. 3, 2006
32. 정상훈·이건표, 제품 사용성과 감성에 관한 개념적 연구, 감성과학, Vol. 9, No. 3, 2006
33. 정은주·이연숙, 감성 인터랙션 공간디자인의 개념적 접근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7권, 2호, 2005.10
34. 최은희·권영길, 지각적-인지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과 선호도의 관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2006.06
35. 하세강·최상현, 어린이 병원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감성적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2004.10
36. 함정도, 실내디자인의 주기적 변화 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No.21, 1999.12
37. 허성철, 디자인 요소의 상대적 주목성과 제품 선호 반응의 상관관계, 감성과학, Vol. 8, No. 3, 2005
38. \_\_\_\_\_, 경험적 감성 정보에 의한 직관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 한국감성과학회지, Vol. 6, No. 1, 2003

<접수 : 2007. 12. 31>